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발전교육

AGEPP

Asia Good ESD Practice Project

아시아의 ESD 핸드북

지역 시민의 손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다



<http://www.agepp.net/>





시작하며

지구가 점점 따뜻해져서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몇 미터나 높아지게 되고, 도쿄나 오사카 등 바다에 인접한 도시가 수몰된다. 가뭄과 홍수가 늘어나고, 농업이 타격을 받아 식량부족이 발생한다.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불안정한 사회가 된다. 이윤 극대화를 지향하는 경제 활동이 확대되어, 자연이 파괴되고 세계각지의 자원이 고갈되어 버린다.

이런 일들이, 차례차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는 현란한 고층빌딩이 늘어서고,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으며, 맛있는 음식은 언제라도 먹을 수 있는「풍요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풍요함을 유지하는 구조는, 여기저기서 우리들의 미래의 풍요를 파괴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 온난화, 식량위기, 서로 다른 문화 간 갈등, 폐기물문제, 자원분쟁, 인권침해 등 여러 가지문제가 차례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풍요함을 우리들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사람들과 나누면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도 전해주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은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배움」을 확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국제연합(UN)은 2005년부터 10년 계획으로 ESD의 활동을 세계 각국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핸드북은, 도요타 환경활동지원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아시아 ESD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아시아 지역의 활동을 ESD의 관점에서 소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한국, 일본 등 6개국을 무대로, 「어린이」, 「물과 사람」, 「도시와 마을」, 「소수 민족」, 「농업」, 「자립하는 경제」의 6개의 관점에서 12개의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3년에 걸친 「아시아 ESD 추진사업」(이하 AGEPP)에서는, 30개가 넘는 사례가 모아져 보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ttp://www.agepp.net/>)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핸드북이 아시아 각 지역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 활동을 널리 전하고, 아시아의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작은 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AGEPP 편집위원회 일동

모든 이슈를 포괄하는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교육

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발전교육)



제1장 아시아로부터의 보고 5

종이재생, 극빈 청소년의 재활지원, 두 마리의 토끼를 잡다(인도네시아)..... 6

에코투어로 장애, 비장애인이 함께 공감하는 자연(한국) 8

호수, 숲과 강 그리고 사람들을 연결하다(일본) 10

버려진 저수지를 시민의 손으로 부활시키다(한국) 12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녹색희망행동(중국) 14

지역의 가치를 되찾아 주는 ‘지역협력봉사단’(일본) 16

목목히 전통사회를 지켜나가는 산속 주민들(인도네시아) 18

벌채로부터 지킨 숲이 에코투어리즘의 산실이 되다(인도) 20

옛 농법으로 쌀을 생산하여 자립농업을 지향하다(필리핀) 22

무분별한 삼림벌채에서 유기농업으로 수익창출의 방법을 전환하다(인도네시아) ... 24

극빈여성들에게 경제적 자립의 길을 띄운 작은 마을의 에코비즈니스 지원(인도) ... 26

숲의 혜택을 상품으로 개발한 산간 주민들(필리핀) 28

AGEPP참가자의 목소리 그 첫 번째 30

제2장 ESD로 아시아를 연결하다 ... 31

움직임을 시작한 아시아의 시민 32

AGEPP에 대해서 34

ESD-J에 대해서 36

AGEPP참가자의 목소리 그 두 번째 38

제 1 장

아시아로부터의 보고

아시아 각 나라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쌀을 중심으로 한 농경사회가 긴 시간 계속되어온 아시아에서는 서양과는 달리 자연과 조화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지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아시아의 지혜를 다양한 관점에서 현대에 활용한 활동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아시아의 과제① 어린이

종이의 재생, 극빈 청소년들의 재활 지원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지역: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 탄쥬프리오크

실시주체 : 세카르재단 (Setia Kawan Raharja : SEKAR Foundation)

활동소개

세카르 재단은 탄쥬프리오크 지역에서 10~20대의 집 없이 거리를 떠도는 청소년들과 함께 폐휴지와 식물의 줄기를 이용해 재생종이를 생산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에서 사용되는 「재생」 "recycling"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종종 버려진 쓰레기처럼 대접 받던 청소년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되살려내고 버려진 자원의 가치 또한 되살려 냈기 때문입니다. 이들 청소년들은 하천 변에 무성하게 자라는 식물을 말려서 줄기를 마련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종이쓰레기와 모아 펄프의 원료로 활용하여 질 좋은 재생 종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재생지를 사용한 공예품은 높은 평가를 받아 해외로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의 자연환경이 개선되고, 가난한 청소년들이 안정된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공장은 청소년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신뢰하는 가족 같은 분위기로 운영되어, 청소년들은 평온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진〉 하천변에 무성하게 자라는 식물인 호테이아위이 (물옥잠) 를 수확해 말리는 모습이다. 이것은 폐종이와 함께 재생지를 만드는 재료로 쓰입니다.



〈사진〉 한 장 한 장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종이만들기



〈사진 왼쪽〉 생산된 재생지를 사용해서 티슈 상자나 탁



〈사진 오른쪽〉 작업을 위한 회의에는 공장 직원은 물론 청소년들까지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배경

탄쥬프리오크는,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시 북부, 공업 활동이 번창한 지역으로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곳입니다. 빈부격차, 고용불안 등 복잡한 사회·경제적인 문제는 가정폭력이나 빈곤 등으로 이어져 청소년들이 가출할 수 밖에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인 사람에게 물건을 팔거나 금품을 구걸하는 등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마음의 문을 닫고, 폭력이나 도박, 마약, 매춘 등에도 관계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시아의 과제① 어린이



에코투어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감하는 자연

지역: 한국 인천시

실시단체: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활동소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와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어린이가 함께 체험을 반복해가면서 자연환경에 대해서 배우는 에코투어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얼음 위에서 썰매 놀이를 하는 겨울 캠프, 해양공원의 간석지에서 진흙투성이가 되어 노는 여름 캠프, 야외에서 큰 그릇 하나에 비빔밥을 만들어 함께 먹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400여명의 장애 어린이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가했고, 참가했던 장애 어린이들이 해양공원지역 택지건설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인천의제21은 에코투어가이드의 양성과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많은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장애 어린이를 돌보는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저소득가정의 주부를 대상으로 장애아를 위한 돌보미를 양성 연수를 실시하여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여성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했을 뿐 아니라 장애인을 사회와 연결하는 또 하나의 통로를 만들었다는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장애·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간석지의 진흙 안을 걸으며 체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참가자 전원이 즐겁고, 만족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2006년의 겨울 캠프에서 썰매를 타고 있습니다.



환경교육과 복지관계자들이 모인 기획회의

배경

한국에서는 16개의 광역시·도와 200개에 달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지방의제21」 설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이하 인천의제21)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입니다. 인천시는 한국의 중서부 서울과 황해 사이에 위치한 광역도시입니다. 1970년대부터 진행된 급격한 공업화 과정에서 경제 성장거점도시로 성장한 인천은 인구 급증과 경제성장의 중심지였습니다.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는 인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 통합'을 선정하였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인천의제21은 이 사업을 위해 행정, 환경교육, 사회복지 분야의 관계자가 함께 한 원탁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논의가 발전되어 에코투어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시아의 과제② 물과 사람

호수, 숲과 강물 그리고 사람들을 연결하다.

지역: 일본 이바라키현 카스미가우라 유역
 실시주체: 비영리법인 아사자 기금

활동소개

아사자기금은 콘크리트로 마감해 버린 카스미가우라의 호수 가에 초등학생들과 재래의 수생식물을 다시 심고 주변의 자연을 복원하는 활동에서부터, 호수를 강줄기에 연결하고, 주변의 논과 농경지, 그리고 삼림까지를 연결하는 등 자연환경보전 범위를 늘리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복원, 초등학생에 의한 예전의 흔적 청취조사, 야치다(골짜기에 있는 습기가 많은 논)에서의 주미(술 만드는 쌀)나 지역 술 만들기, 잡목림의 관리, 외래어종 퇴치, 유역의 초등학교 200곳에서의 비오름 만들기 등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아사자 기금은 이들 다양한 주체가 협력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율·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업에 13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가 하고 있으며, 10년 단위로 복원시킬 생물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복원된 생물종이 향후 100년 이상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되찾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수생식물 「아사자 (순채)」를 호수 가에 심고 있습니다.



평지에 둘러싸인 카스미가우라 호수의 전경



10년 후에는 오오요시키리 (개개비) 를, 20년 후에는 오오하쿠초 (백조) 를 부활시키자. 10년마다 부활시킬 야생생물을 지정하고, 활동목표를 설정한 아사자기금의 포스터



산을 손질할 때 나온 잡목의 가지를 묶어 놓아서 방파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이 지역에서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기업의 사원과 그 가족이 호수 주변의 야치다 (골짜기에 있는 습기가 많은 논) 에서 모내기(벼 파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배경

이바라키현 카스미가우라는 일본에서 2번째로 큰 호수로, 호수가 길이는 250킬로미터입니다. 1969년부터 95년까지, 치수(홍수나 가뭄의 피해를 막기 위한)와 이수(물의 이용)를 목적으로 카스미가우라 개발 사업을 실시하여 호숫가는 콘크리트로 마감되어졌고, 이로 인해 수질이 나빠져 물이 탁해지고, 어업 쇠퇴, 삼림 감소, 인구의 증가 등의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환경 문제의 해결을 향한 여러 가지 시책이 취해졌지만 근본적인 개선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아시아의 과제② 물과 사람



버려진 농업용 저수지를 시민의 손으로 부활시키다

지역: 한국, 전라북도 전주시

실시주체: 평화동 에코클럽, 전주의 제 21 추진협의회

활동소개

전주시는 시내 저수지의 매립을 둘러싸고 주민과 개발업자가 대립관계에 빠졌습니다. 저수지를 지키자 라는 주민은 2003년 평화동 에코호수클럽을 시작하여 저수지에 관한 토론회·공청회·세미나를 개최하고, 택지개발업자, 매립 찬성주민 및 행정기관과 협의의 장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 외에도 쓰레기 줍기, 두꺼비 구제작업, 실험학습장의 설치, 수생식물의 손질, 야생 풀꽃 식수활동 및 가을 문화제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는, 평화동 에코클럽과 함께 공개토론회·세미나 등 기획에 관여하여 이해당사자가 상호간의 의견을 말하고 들을 수 있는 편견 없는 대화의 장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같은 대화는 대립에서 합의로 변화하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저수지는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수질도 주변의 자연환경도 개선되어가고, 환경교육의 장으로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린캠페인으로 저수지 미화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



고층 아파트의 모퉁이에 남은 농업용 저수지



많은 사람들이 저수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수변의 자연을 무대로 여러 가지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배경

전주시는 한국의 남서부에 위치한 인구 62만 명의 도시. 전통적으로 농업 지역이던 전주는 1970년대부터 도시화로 인한 인구 급증으로 시내 중심부의 녹지는 점차 감소하였고, 주요 산업도 서비스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주지역에는 1940년대 만들어진 농업용 저수지가 여러 곳 있었으나 택지개발로 인해 그 수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후로도 보다 더 많은 저수지가 사라질 것입니다. 남겨진 저수지도 농업의 쇠퇴와 함께 관리되지 않아서 악취와 해충 등을 이유로 매립을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아시아의 과제③ 거리와 마을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녹색희망행동

주최: 중국 농촌 전역

실시주체: 자연의 친구들, 중국청소년개발재단

활동소개

중국은 도시 학교의 교사를 자원봉사자로 농촌의 「희망학교」에 1년간 파견하여 환경교육을 실천하는 「녹색희망행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연수 후에 파견되어 현지의 교사와 어린이들과 「사막화」 등 구체적인 지역의 과제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일들을 합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민주적으로 토론을 진행할 수 있게 교육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500명의 자원봉사자가 1,000개 학교에 파견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자신도 중국 농촌의 과제와 그 배후에 있는 도시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파견된 자원봉사자와 현지의 어린이들



자연물을 이용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진흙에 손을 넣고 느낌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파견 전 배경에서 연수를 받습니다.

배경

중국은 급격한 경제개발 결과 농촌은 사막화와 생태계의 파괴, 외래종의 이입, 대기·수질 오염 등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체인구의 70%가 농촌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가난한 농촌에서는 환경교육을 실시할 여유도 없고 학교조차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청소년개발재단은 중국도시지역과 국외의 재단으로부터 기부금을 모아서 농촌 지역에 「희망학교」를 설립하고, 어린이의 학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과제③ 거리와 마을

지역의 가치를 되찾아 주는 「그린빌리지 협력봉사단」

지역: 일본, 농촌 전역

실시주체: 비영리법인 녹색지구센터 (GEC)

활동소개.....

1993년 이후 매년, 도시에 거주하는 18세부터 40세까지 자원봉사자 20~30명을 국내 농촌에 1년간 파견하는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지역 당1~2명을 파견하고, 자원봉사자는 지역에서 선택합니다. 파견된 자원봉사자는 산림자원관리, 공공시설봉사, 특산물생산물이나 공예품 만들기 등의 활동에 관계하며, 2007년 5월 현재 총 384명이 총 273개 지역에 파견되었습니다.

도시 젊은이들에게 있어 농촌에서의 생활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배우고, 전통적인 지혜를 접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이며 이후 인생의 선택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중 활동 종료 후 농촌에 정착하기로 결정한 젊은이는 141명에 달합니다. 이 사업은 농촌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자신감과 긍지를 느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삼림관리를 돕고 있는 자원봉사자 (구마모토현 이츠키 마을)



수확한 벼를 전통적인 방법으로 건조 시킨다 (나가노현 사카에 마을)



낙농을 돕다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시)



지붕 덮개를 바꾸는 작업에 참가한 젊은이 (오오이타현 분고오오노시)

배경.....

일본의 근대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대기·물 등의 환경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도 개인화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농촌에서는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어 지역에서 서로를 지탱해주는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자연을 활용하는 전통적인 지혜가 전승되어지지 않게 되고 사람이 적당히 손을 보태는 것으로 균형을 유지해온 농촌의 자연 생태계도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소수민족의 실험

아시아의 문제④ 소수민족의 실험



묵묵히 전통사회를 지켜나가는 산속의 주민들

지역: 인도네시아, 서자와주 카네케스촌
 실시주체: 바두위족

활동소개

바두위 족은 자카르타에서 120킬로미터 떨어진 산 깊은 곳 가테케스촌에 사는 민족입니다. 바두위 사람들은 전기나 차, 텔레비전, 오락시설 및 학교조차도 거부하고, 전통적인 가치관에 의지해서 자립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바두위 사람들은 「먹을 것, 거처할 곳, 입을 옷가지」 정도가 생활필수품의 전부이며, 생필품은 자연 자원을 이용해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깁니다. 바두위 족은 이 세 가지 외의 것은 인간의 욕심과 과도한 욕망부터 온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평생에 걸쳐 독특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다 좋은 상태로 하기 위한 보전의 방식이나, 바두위의 가치관 속에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바두위 족은 현재의 의식주에 만족하고 있으며, 흔히 빈곤이나 문맹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등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지속가능한 생활을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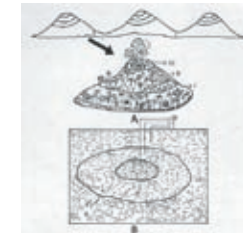
바두위의 생활방식을 가르치는 주민의 집이 바두위의 학교



여성의 역할이 되고 있는 베짜기



3년마다 이동하는 화전농업 광경



지역을 주거지, 농경지, 그리고 손이 닿지 않는 삼림 등 3개 영역으로 구분·관리하고 있습니다.

배경

카네케스촌은 백 바두위라고 불리는 3개의 마을과 흑 바두위라고 불리는 53개의 마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약 1만 명. 흑 바두위는 백 바두위의 바깥쪽에 위치하고, 백 바두위는 외부와의 접촉이 전혀 없으며 외부의 사람이 백 바두위에 들어가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바두위족은 「자연을 망치는 것은 인간의 내면을 망치는 것이다. 신으로부터 전해 받은 자연은 차세대를 위해서 인간에 의해 보호되어야만 한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수백에 달하는 소수민족이 살며, 공용어인 인도네시아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수민족의 실험

아시아의 문제④ 소수민족의 실험



벌채로부터 지킨 숲이 에코투어리즘의 산실이 되다

지역: 인도, 나가랜드주 코노마촌
 실시주체 : 코노마 자연보호구 (kncts) 외

활동소개.....

코노마에 사는 안가미족은 문화, 역사, 자연보호 등을 포괄하는 생태관광「그린 빌리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보전과 관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코노마 자연보호구 (KNCTS) 등 3개의 조직이 연대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광프로그램을 기획·실시하는 것 이외에 이 사업은 해외 인사를 초청하여 워크숍·세미나 등을 개최하였고, 지역의 환경적·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법적기초를 마련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관광 가이드나 민박을 운영하여 수입을 얻을 뿐 아니라 생태관광산업의 구매자로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만든 음식 등을 구입함으로써 지역 농민들도 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워크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자연보호나 관광에 대해 청년들이 학습하고 토론하며 외부 사람들과도 의견을 교환해나가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냥감이 된 동물의 뼈를 보여준 안가미족의 장로. 예로부터 수렵이 왕성히 행해졌습니다.



산간에 있는 코노마는 계단식 논이 넓고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활동에 참가한 학생 자원봉사자들



들계단의 고갯길이 계속된 코노마촌

배경.....

코노마촌은 인도 북동쪽 미얀마와의 국경지대인 나가랜드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의 도시 코히마로부터 차로 1시간정도 거리에 위치한 산간의 마을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삼림벌채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숲을 삶의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안가미족의 장로는 북부 인도에서 일어나는 삼림벌채를 금지하는 판결을 국가의 최고재판소에서 얻어냈습니다. 촌민의 일부는 더욱 강력한 자연보호를 호소하며, 안가미 문화의 중심이 되어온 「수렵」 금지를 호소했습니다. 수렵반대와 찬성파의 촌민 양쪽이 토론을 거듭하여 결국, 이 지역은 자연보호구로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자립을 위한 농업

아시아의 과제⑤ 자립을 위한 농업



옛 농법으로 쌀을 생산하여 자립 농업을 지향하다

지역: 필리핀, 농촌 전역

실시주체: 각지의 농민과 NGO의 자주운영

활동소개

1987년, 필리핀 대학의 전문가 그룹이 MASIPAG (마시파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농민들은 화학비료나 농약에 의지하지 않고 토질을 개선하고 잡초·해충을 관리하는 방법과 지역의 환경에 맞는 재래품종을 재배하는 기술을 배워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전역에 42개의 MASIPAG 그룹이 있습니다. 소작·소규모농가 그룹이「知(지식)」, 「技(기술)」, 「心(마음)」으로서 농업을 실천하기 위해 강의, 토론, 사례방문을 통해 연수를 받고 재래품종의 종자를 사용, 시험농장에서 기술을 시험합니다.

화학비료나 농약을 구입하지 않기에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고, 자연과 건강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단순히 전문가의 지도에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토론을 해서 기술을 연마하고 개량한 종자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관리하는 등, 농업 그 자체를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농민들의 힘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험농장에서의 모내기. 여기에서 배운 기술을 시험합니다.



크게 자란 재래품종의 쌀을 보여주는 농민



농민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종자은행



MASIPAG의 다수를 카톨릭 교회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경

필리핀에서는 16세기부터 스페인 통치에 의해 농민의 대다수가 토지를 잃었습니다. 현재는 국민의 극소수의 대토지소유자가 국토의 반 이상을 소유, 다수의 농민은 소작농이나 1ha 이하의 소규모 농가입니다. 1970-80년대에는 녹색혁명을 통해 개량된 품종 재배를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종자를 사고, 대량의 물과 화학비료와 농약을 필요로 하는 신품종으로 전환하는 것은 곧 소규모농가가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되고 더욱더 빈곤하게 되는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개량품종 도입으로 전통적인 농업을 유지하는 지혜나 기술도 급속히 없어갔습니다.

자립을 위한 농업

아시아의 과제⑤ 자립을 위한 농업



무분별한 삼림벌채에서 유기농업으로 수익창출의 방법을 전환하다

지역: 인도네시아, 동 자와주 토라와스 촌
실시주체: 환경교육개발 센터 (PPLH)

활동소개.....

토라와스의 NGO 환경교육개발센터(PPLH)는 환경교육을 포함한 농촌개발 활동을 1999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농민이 수입을 위해 무분별하게 삼림을 벌채하는 것이 환경파괴로 직결되고, 그것이 자신들의 생활의 근간이 되는 농업도 파괴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활동과,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 과제해결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유기농업 그룹의 활동은 활발하여, 매년 참가하는 농민의 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기농업에 관한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고 실천해 왔습니다.

농민들은 스스로 퇴비를 만들어 토양을 개량하고, 이에 따라 농산물의 생산 원가도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종전보다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그만큼의 수확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간업자를 통하지 않고 시장에서 농작물을 직접 팔수 있는 유통구조를 확보하여 수익은 이전보다도 증가하였기 때문에 농민들은 환경에 부담을 주는 근대농업을 하기 위해 대출을 되풀이하는 악순환의 고리도 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삼림벌채로 인해 토양이 유실되고 토사붕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유기농업에는 물소를 밭을 경작하는데 활용하는 외에 분뇨를 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성 그룹이 운영하는 유기농 야채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가게



농민들이 만든 밭의 중심에 있는 「교실」. 여기에서 강의 · 토론을 합니다.

배경.....

토라와스는 자와주 동부의 페난단강 산기슭에 위치합니다. 농업의 근대화 정책으로 농민은 개량된 고수확품종의 종자, 화학비료, 농약을 구입해야만 했었고, 고리의 빚을 계속 해서 저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최근 몇 년간 화학비료와 농약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한편 아시아의 통화위기 이래 제조업에서 일하는 젊은이들도 직장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빚을 떠안은 농민이나 젊은 실업자들은 삼림보호지역에서 위법 벌채를 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까지 2년간은 토라와스 삼림의 30헥타르가 파괴되었습니다.

아시아의 과제 ⑥ 소규모 경제



극빈 여성들에게 경제적 자립의 길을 틔운 작은 마을의 에코비즈니스 지원

지역: 인도, 구자라트 주 힌고르가 지역

실시주체: 인도 환경교육 센터 (CEE: Center for Environment Educaion)

활동소개

인도 북서부의 5개 마을에서 CEE는 빈곤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에코사업에 마이크로 크레딧(소규모 대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근대화하여 대규모가 된 한편, 한쪽 구석으로 내몰려지고 고리 빚으로 고생해온 농민이 저리의 사업자금을 바탕으로 자립을 위한 작은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장의 사람들과 외부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위원회가 교육이나 기술지원을 하고, 유기농업과 에코상품을 개발하여 저소득층 소득증대를 돕습니다.

이 사업으로 지역 내 고용이 증가하고 농민의 부채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도 개선되어 비옥한 토양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자기 자신의 수입을 얻게 된 여성이 어린이의 교육이나 농작물의 작목을 스스로 결정해가는 자신감과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민이 직접 생산물을 판매하고 수입은 모두 자신의 몫이 됩니다.



선인장 열매인 사보텐을 모아서 주스를 만드는 여성들



퇴비와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처리 방법이 기술된 농민용 교과서



여성들이 양질의 버터를 생산, 높은 가치를 인정 받고 있습니다.

배경

힌고르가 지역은 인도의 북서부 구자라아트 주에 있는 자연보호지역입니다. 매우 건조한 지역으로 전체 토지의 반 정도는 농업에 적당하지 않은 토지입니다. 주민은 원래 자신들이 먹기 위해 여러 가지 작물을 손수 키웠었지만, 현금수입을 늘리기 위한 농작물 재배를 시작하면서 물이나 화학비료, 농약을 대량으로 필요로 하는 현금작물 단일재배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물 부족이나 염해가 진행된 것 외에도 화학 비료나 농약을 위한 비용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 결과 가난한 농민은 고리대금의 빚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과제 ⑥ 소규모 경제



숲의 혜택을 상품으로 개발한 산간 주민들

지역: 필리핀 루손섬 북부 이에라마도레 산간부
실시주체: 칼라한 교육재단 (KEF:Kalahan Education Foundation)

활동소개

1977년 칼라한의 숲을 상하게 하지 않고 농업이나 목축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역 숲에서 생산되는 구아바 등을 재료로 잼과 젤리 등의 가공식품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가공도 품질관리도 마케팅에 관한 지식도 모두 재료에서부터 출발하여 연속됐던 실패를 이겨내고 개선을 반복해 가고 있습니다.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 루트를 개척하기 위해서 도회지의 사람들과 타갈로그어나 영어로 교섭하는 것은 소수민족 이카라한의 사람들에게는 괴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카라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활동은 도회지 사람의 가치관에 맞춰가는 것은 아니며, 이카라한에 있는 것들의 의미나 문화, 환경 본연의 모습을 개선해가는 배움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마닐라 중심부의 90%이상의 상점에서 「마운틴후레쉬」라는 브랜드명으로 잼과 젤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젊은이에게 전통적인 지혜와 가치관을 전해주는 KEF의 학교



가공식품 센터에서는 고장이 나도 편리하게 수리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품가공센터에서 재료를 준비하는 여성



출하 전에 꼼꼼히 품질을 체크하는 KEF 설립자 라이스씨

배경

이카라한 족은 필리핀 소수민족의 하나로 루손 섬 북부의 산간에 무리지어 살고 있습니다. 이카라한 족은 삶의 중요한 토대인 숲을 키우고 지켜가는 것이 가능한 생활양식을 완성해왔습니다. 1973년 이카라한 족의 장로들이 지역사회 자립기반구축을 위해 가카한 교육재단(KEF)을 설립하였습니다. 1974년 KEF는 필리핀 정부 산림청으로부터 5,000헥타르의 이카라한 토지를 「삼림보호지역」으로서 관리·사용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AGEPP 참가자의 목소리.....그 첫번째

아시아 각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의 현장을 방문, 기록한 결과를 보고서에 정리한 것은 저마다의 나라에서 활동한 시민영역의 활동가였습니다. 담당자는 3년에 걸쳐서 6건 전후의 프로젝트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사례 보고서를 영어와 모국어로 정리했습니다.

사례를 보다 의미 있고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국제회의를 매년 1회씩 개최하였고, 이때 아시아 각국의 ESD의 실정에 대해서도 정보를 교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ESD 영역에서 아시아를 연결하는 사람의 고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동료들과의 직접적 협의나 국내에서의 사례 조사에서 얻어진 여러 가지 정보가 자기 자신에게도 또 내가 일하고 있는 조직 「BINTARI」에 있어서도, ESD를 진행시켜 가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BINTARI는 다른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고, 조직의 네트워크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아시아 각지에 넓게 퍼져서 파트너십 구축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합니다.



헤리브리한도로 BINTARI 재단 (인도네시아)

이번 경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뿐 아니라 평생교육에 의한 지역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환경교육이 ESD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AGEPP 덕분에 환경교육이 어떻게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ESD를 환경·사회·경제와의 관련 속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GEPP는 아시아의 다양한 나라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배워가기 위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이번 중국의 사례를, 아시아 각 나라의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보다 많은 아시아 사람들에게 중국 NGO의 존재와 활동 내용을 AGEPP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습니다.



인항 자연의 친구들 (중국)

아시아 각국의 사례를 보면서 ESD란 결국 인간의 삶 그 자체와 아주 깊숙이 관련된 것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시아 ESD의 핵심가치라고 생각합니다.

AGEPP을 통해 소개된 한국의 ESD 사례는 모두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중심에서 역할을 수행한 사업들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아시아 각국의 사례를 보면서 한국 지방의제21의 활동을 다시 한 번 반추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AGEPP을 통해 아시아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한국 지방의제21이 감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새롭게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AGEPP은 한국의 지방의제21을 아시아로 연결하는 장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연희 한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LSAK) (한국)
Local Sustainability Alliance of Korea (LSAK)

제 2장

ESD로 아시아를 연결하다

아시아 각지의 ESD의 사례를 수집한 이번 프로젝트는 각지의 시민사회영역의 활동가가 국경을 초월한 공동 작업을 했습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시민 서로 간에 ESD라는 시선을 공유하면서 저마다 지역에서의 활동을 가지고 모여 비교하고 보고서에 정리했습니다. 이 활동 자체도 ESD의 하나의 형태였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한 아시아의 시민지역사회에 있는 전통의 지혜를 살려나가자

아베 오사무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일본추진회협의회의(ESD-J) 대표
릿쿄대학 ESD 연구센터 소장



사진 - 노벨평화상을 받은 방글라데시 그라민뱅크의 유누스 씨 (오른쪽) 와 함께

제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시아 각지에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도시의 거리 아이들 자립지원에서는 도시의 하천에 무성한 호테이아오이(물옥잠)를 회수해서 그 섬유로 종이를 만드는 ‘환경대책’ 과 ‘종이자원’ 이라는 다른 과제가 서로 겹치고 있습니다.

인도의 건조했던 지역에서는 주변에 유전자조작의 목화재배가 대규모로 전개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난한 농민들이 전통을 살린 유기농법으로 화학비료와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는 농업을 목표로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에선 고층 주택 아주 가까이에 쓰레기처리장 같이 되어버린 농업용 저수지를 정리하고 생태계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이 서로 손을 맞잡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사례라고 생

각합니다.

지구는 유한의 세계입니다. 직경 1만2천 킬로미터의 대기와 물과 바위가 한데 모여 있습니다. 기기에 태양으로부터 쏟아지는 일정량의 에너지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지구사회의 밑천입니다. 아무리 경제성장을 하려고 해도 그 밑천을 잃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인류는 여기에서 살 수 없게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대기업에서부터 개인까지 전체 경제활동의 수입액이 계속 증가하여 이익이 계속 나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매출을 영원히 계속해서 올라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현대는 영원히는 계속되지 않는 경제성장의 벽에 직면해있는 것입니다.

근래의 경제위기만이 아니라 지구온난화나 자원문제는 이 유한의 세계에서 인

간사회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큰 문제를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가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사람」입니다.

ESD는 그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에 참가하는 사람 만들기입니다.

이 사람 만들기라는 것은 정부나 국가가 아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에 의한 활동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큰 관점에서 말하면, 국가사회부터 시민사회로의 이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민이란 이를테면 시민조직이며 또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번 아시아 각지로부터의 사례 수집에는 각 지역의 정부나 행정이 중심이 된 활동이 아닌 시민조직의 활동을 모았습니다. 금번 사례수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키워진 지혜(지역지혜)

와 아시아의 민중이 전해 받아온 지혜(전통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기농법을 하는데도 환경보전활동을 하는데도 그 기초가 되는 것은 그 땅에서 몇 백년 몇 천년이나 삶을 영위해 온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오랜 지난날의 전통지혜라는 것은 근래의 국제 경제사회에서는 가치가 없는 잊혀져버린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지역에 뿌리내린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를 위해서는 이 지혜를 넓게 시민의 지혜로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사례집을 계기로 아시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역에 눈을 떠서 지역에 뿌리내린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 즉 지역의 자원이나 전통문화 등을 되살려 자신들의 손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드는 활동(내발적 발전)에 다시 일어서고, 그 연결 고리가 더욱 더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AGEPP」에 대해서

- 2006년 AGEPP 참가 NGO의 공모 및 선정
AGEPP 제1회 국제 회의 개최 (도쿄)
우수사례 선정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한 포맷, 프로젝트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
AGEPP 웹사이트 운영개시
12 개 우수 사례 수집
- 2007년 AGEPP 제2회 국제회의 개최 및 한국 ESD 국제포럼에 참가 (한국 통영시)
사례 포맷 재검토, 사업의 방향성과 이후의 AGEPP 성과 활용방안논의
제4회 환경교육 국제회의에서 특별 섹션을 개최 (인도아메다바도 시)
AGEPP의 가치를 공유하고 아시아의 ESD 네트워크의 본질에 대한 논의
AGEPP 인도 사례 대상 지역 방문 (구자라트 주)
9개 우수 사례 수집
- 2008년 <<아시아로부터 G8 회담으로>>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시민조직의
제언 마련을 위한 회의 개최 (도쿄)
AGEPP의 시점을 정리하고 제언작성
G8 환경장관회의 및 도야코 회담을 향한 제언 발표
NGO 시민회의에서 AGEPP와 제언발표
AGEPP 제3회 국제회의 개최 (도쿄)
핸드북 편집을 위한 사례 분석
AGEPP 핸드북의 작성



이 프로젝트는 아시아 전지역에서 ESD가 확산·발전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체가 된 것은 일본의 ESD을 확산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시민조직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 일본 추진협의회」입니다. 약칭은 ESD-J. 비영리조직 소위 말하는 NPO입니다.

아시아 각국 동료들의 전자 메일을 통해 참가를 모집하여 2006년부터 각지에서의 ESD의 진행 상황을 파악해가면서 사례보고의 틀(구조) 만들기를 진행

했습니다. 모두가 결정한 사업의 이름은 AGEPP입니다. 「아젝프」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아시아에 있어서의 ESD 우수사례 프로젝트」를 의미하는 「Asia Good ESD Practice Project」의 머리글자를 딴 것입니다.

2008년까지 3년간 아시아의 전통과 일상적인 삶에 얽혀있는 지혜와 지역에 뿌리내린 ESD의 실천사례를 발굴·문서화 하는 것을 통해서 아시아에서의

ESD의 추진과 네트워크의 구축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제까지 30개 이상의 사례가 모였습니다. 핸드북에 담은 6개국 이외에 네팔로부터도 사례 보고가 전해졌습니다. 보고의 중심내용은 1사례가 20페이지나 달하는 본격적인 내용입니다.

테마는 농업, 빈곤퇴치, 성평등, 어린이의 권리, 장애, 공중위생, 재활용, 원주민, 에코투어리즘, 농촌 마을 재생, 수변환경보전 등 다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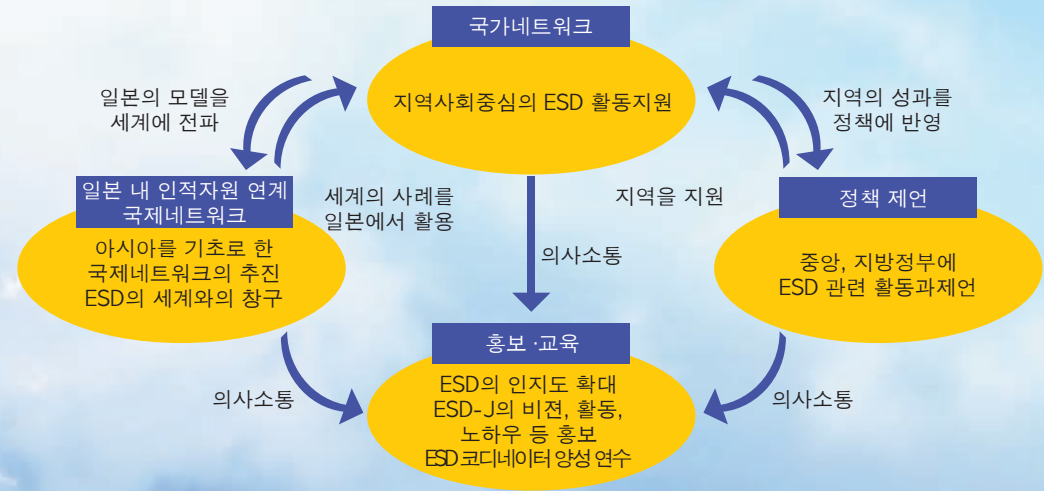
또 모아진 사례의 내용이나 AGEPP와

ESD에 관련한 뉴스 등을 다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타갈로그어, 인도네시아어, 네팔어)로 열람 가능한 웹사이트도 만들었습니다.

아시아의 ESD의 특성이나 시점을 명확히 하는 토론회도 진행하여 2008년에는 일본에서 열린 G8 훗카이도 정상회담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메커니즘 만들기」라는 제언을 발표하는 등 아시아 시민조직들의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되어 왔습니다.

「ESD-J」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일본 추진협의회 (ESD-J)」
www.esd-j.org



ESD-J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3년에 발족한 비영리조직입니다. ESD와 지역 만들기 등에 활동하는 시민조직이나 교육 관련기관, 지자체, 기업, 미디어 등 조직이나 개인을 연결하며 국내외의 ESD추진을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 개발, 인권, 복지, 평화 등 다양한 테마로 활동하는 100개 이상의 조직과 약 300명의 개인으로 된 네트워크를 만들어 국내 및 아시아 지역의 ESD 사례수집과 홍보, 정책 제언, 교재개발, 연

수, 정보 공유 등을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주요한 활동목표의 하나는 ESD를 보다 알기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국내 각지에서 시민의 ESD 활동을 소개하는 핸드북 만들기과 지역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그 고장의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네트워크 미팅」의 지원, ESD의 지역모델만들기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ESD-J의 활동

- * ESD를 추진을 위한 정책제언
- * 지역에서의 ESD 활동지원과 네트워크 만들기
- * ESD에 관한 국제 네트워크의 구축
- * 각종 미디어에 의한 홍보
- * ESD 교육 및 홍보



AGEPP 참가자의 목소리 그 두 번째

사례조사에서 풀뿌리차원에서 ESD를 실천하고 있는 단체를 방문했습니다.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목소리를 통해서 ESD의 참된 의미와 어떻게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가 실제로 행해질 수 있을 것인가가 전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민의 자기결정권이나 자기 존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도와 발견이 필요합니다. 지역이 가진 많은 지혜를 체계화 하고, 조직화 해가는 것이 지역의 강점이 되며 힘이 되는 것입니다.

AGEPP는 계속해 가야만 합니다. 아시아의 나라들로부터 100개의 사례를 모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방송제작, 책이나 사진집 등을 만들어 국제연합에서 ESD를 담당하고 있는 유네스코 등에 제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에리자베스 로하스
환경방송연합(필리핀)

Environment Broadcasting Circle Inc.

인도에 있어서 ESD는 생명과 사람의 삶을 위한 교육입니다. ESD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관계하는 교육이기도 하며, 결국 인간이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라는 것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ESD에는 근대적인 과학지식이나 연구만으로는 불충분 합니다. 지역의 지혜와 오랜 기간 전해져온 실천을 받아들여 ESD를 풀뿌리차원에서 현실적으로 그것을 실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이제까지 모아온 지역에 뿌리내린 ESD의 실천사례 수집은 지금부터도 계속 해가고 싶습니다. 또 이것들의 사례를 기반으로 국가나 국제기관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ESD에도 성과를 반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멧슈 사바리아 씨
환경교육센터 (인도)

이후 AGEPP의 사례를 기반으로 대학원 학생용 커리큘럼 개발을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까지 모은 사례를 가로지르는 테마나 토픽을 채택하여 그것을 깊은 논의로 진행시키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초우주 씨
국립 대만사범대학 (대만)

재정지원 : 토요타 환경활동지원프로그램

협력해 주신분

- 초우 주 (국립대만사범대학)
- 비슈누 반다리 (국립부산대학교)
- 나토리 요시히로 (국제연합 대학교등연구소 UNU-IAS)
- 마쓰무라 타카시 (국제연합 대학)
- 오카다 유우코 (국제연합 대학)
- 데렛쿠 에리아스 (유네스코방콕사무소 UNESCO Bangkok)
- 코오노 마사노리 (재단법인 유네스코 아시아문화센터 ACCU)
- 문딿푸 타브차는 (국제자연보호연합 IUCN)
- 문원준 (한국통영시청)
- 아사쿠라 코우지 (사회법인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NFUAJ)

AGEPP 편집위원

- 아두루 판디아 (인도 환경교육센터 / CEE)
- 라메슈 사바리아 (인도 환경교육센터/ CEE)
- 에리자베스 로하스 (필리핀 EBC)
- 웨이 프리한토로 (인도네시아 BINTARI재단)
- 셴 젠화 (중국 자연의 친구들/ Friends of Nature, China)
- 리 치에 (중국 자연의 친구들 / Friends of Nature, China)
- 인 향 (중국 자연의 친구들/ Friends of Nature, China)
- 윤경호 (한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LSAK)
- 박연희 (한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LSAK)
- 심현민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GGAG21)
- 찬 후이 (대만 아스 팻센터)
- 디루 슈레스타 (네팔 NRC-NFE)

자원봉사

원 중빈, 마니타 슈레스타, 오오타 마사코, 김호철, 쿠보야마 사토시, 고데라 마사아키, 사이토 미키, 사노 준야, 소가 사치요, 다카이 아유미, 다케마츠 카츠히사, 나카무라 마사요, 하라다 야스시, 야마자키 메구미, 야마다 사치에 등 다수의 여러분.

ESD-J 담당자

이사 : 아베 오사무, 오오모에 준이치, 사토 마사히사
사무국 : 무라카미 치사토, 노구치 후야코

「아시아 ESD 핸드북」 2008년 11월 30일 발행
발행인 / 아베 오사무
아트 디렉션 / 미야베 코우지
NPO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일본 추진협의회 /ESD-J」
우) 150-0001 도쿄도 시부야구 진구마에 5-53-67 코스모스 아오야마 B2F
TEL: 03-3797-7227 FAX: 03-6277-7554